전법 일기

우리는 '마음의 스승'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다. 소외되고 힘겨운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작은 온정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일지 모른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정성은 때때로 고통보다 큰 희망이 돼 주고 그 희망은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가 된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 불자들은 법회 날이면 하던 일도 멈추고 법당으로 향한다. 손끝으로 펼쳐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한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비장애인인 우리가 더 깊은 수행과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오래전 그들을 만났을 때는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이들이 많았다. 육체적인 장애는 마음의 벽이 되기도 했고 세상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며 그들의 생각은 서서히 변화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자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이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민다. 도움만 받던 사람들이 기꺼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 변화는 그들 자신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됐다.

전철역에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는 시각장애인 불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광림사 법당까지 안내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있다. 서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끼며 부처님 앞에 다가서서 합장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진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헤맬 때 두 손을 잡아 길을 안내해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 법회를 마치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봉사를 하며 서로의 육체적 아픔을 달래준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베푼다는 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만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남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마음 써야 할 일은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일이다. 그 친절함이 따뜻한 마음이 되어 전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가난한 이에게는 물질적 도움이,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는 자비심이, 진리를 찾는 이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가가는 것이 참된 나눔이 된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손길 하나면 충분하다.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웃었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 주었다. 부처님 앞에서 손을 모으며 우리는 말보다 깊은 마음의 언어로 '자비'를 배웠고 서로의 길을 밝혀 주는 '마음의 스승'이 되었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㉒ 소요 태능 선사의 오도송

참된 불성의 눈을 뜨고 살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의 하룻밤 주막(蘧廬天地假形來)
얼마나 많은 생을 나고 죽고 했는가(慙愧多生托累胎)
겨울밤 고사목 부러뜨리는 흰 눈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玉塵一聲開活眼)
깊고 밝은 달만 내 마음에 비치네(夜深明月照靈臺)

소요당(逍遙堂) 태능(太能, 1562~1649) 선사는 전라도 담양 사람으로 백양사, 금산사, 연곡사에서 교화를 폈다. 당대 불가의 양대 산맥인 부휴(浮休) 대사에게서 경전을 배우고, 뒤에 묘향산에 찾아가 휴정(休靜) 대사에게서 참선 공부를 해서 선법을 계승했다.

부휴 대사는 승보사찰인 송광사를 중심으로 지리산의 맹주였고, 휴정 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나라를 구한 호국 대성사이다. 부휴 대사의 제자 3걸(충휘·응상·소요) 중에 한 분이며, 서산 대사의 문하 4대파(사명파·편양파·정관파·소요파) 중 하나인 소요파를 이룬 선교(禪敎)의 거장이다.

위의 오도송은 〈소요당집〉에 나오는 선시다. 〈소요당집〉은 그가 입적한 후 150년이 지나 편찬됐다. 서산 대사의 제자 가운데 특히 시문에 뛰어나 스승의 선시를 계승하여 자연을 노래한 그의 시가 일반 사대부에게도 회자돼 〈동문선〉에 수록됐다.

오도송의 주제는 인생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노래한다. 불교 교리의 핵심인 무상·무아(공)·중도·연기·마음 등을 운율을 가미하여 게송으로 읊는 것이다. 소요 대사의 선시는 깨달음의 세계를 불교의 전문 용어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 체험을 사실적으로 자연에 비유하며 상징을 통해 표현해 문학성이 뛰어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사들의 선시(禪詩)는 불립문자인 깨달음의 경계를 시적인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시인은 시에 선적인 깊은 의미를 담아서 삶의 의미를 통찰해 시를 단장했다. 이렇게 선과 시가 상호 교류하고 만나 동방의 시문학사를 빛냈다.

소요 대사의 오도송은 전반부에서는 중생의 삶을 쉽고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후반부에서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은 광명의 세계를 설하고 있다. 1·2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의 하룻밤 주막, 얼마나 많은 생을 나고 죽고 했는가"라고 무상한 인생의 모습을 읊고 있다. 최희준 가수가 노래를 부른 '인생은 하숙집' 가사와 같이 친근감이 있는 시구이다.

인생은 나그네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가 하룻밤 자고 떠나는 여관, 주막집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윤회를 되풀이하는 고륜중생(苦輪衆生)을 노래하고 있다.

3·4구는 "겨울밤 고사목 부러뜨리는 흰 눈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 깊고 밝은 달만 내 마음에 비치네"라고 미몽의 잠에서 문득 깨어난 오도(悟道)의 세계를 읊고 있다. 지혜광명인 불성을 발견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나오면 둥근 달이 떠 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보배창고가 있다. 눈을 뜨면 바로 월광(月光) 심주(心珠)가 비춘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혜의 광명인 불성이 빛나고 있다. 소요 대사는 깊은 산사에서 밤새 내린 눈[백설]이 쌓여 그 무게로 천년 고사목이 부려지는 소리를 듣고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색성오도(色聲悟道)이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바라본다. 내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본래마음인 자성[불성]을 발견했다. 견성(見性) 성불한 것이다.

소요 대사의 오도송은 무상한 인생을 살면서 참된 불성의 눈을 뜨고 살라는 가르침이다. 무상한 인생을 살면서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까지 보태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허탕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명상 주도권을 AI에 맡길 것인가

인공지능(AI)이 마음의 상태를 읽고 명상 과정에 개입하는 기술은 이미 일상이 됐다.

뇌파 측정기와 감정 분석 앱, 자동 피드백 명상 기기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명상은 더 이상 수행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기술이 명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최근 한국불교상담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AI가 수행의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집중이 흐트러지면 음악과 진동이 즉각 반응하고, 가상현실(VR)은 맞춤형 선방 이미지를 제공한다.

일부 기술은 사용자의 상태를 수치화해 수행이 '깊다'거나 '얕다'는 평가까지 제시한다. 명상의 해석과 조절이 수행자가 아닌 '기술'에 의해 이뤄지는 흐름이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

내면 데이터의 처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감정·주의·불안 등은 종교와 상담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인데, 시중 기기 상당수는 이를 수집해 저장하고 외부 서버로 전송하기도 한다.

신행 과정에서 생성된 내면 기록이 기업의 데이터로 전환되는 셈인데, 이를 둘러싼 윤리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AI 명상이 심리치유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상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개인사·감정·관계적 맥락을 구분하지 못한 자동 피드백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AI가 명상법을 안내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의 판단과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금 불교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배척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경계할지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AI는 명상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수행의 목적까지 기술이 규정하도록 맡길 수는 없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수행의 본질은 더 분명해야 한다.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정할지 선택하는 일, 그 책임은 이제 불교계에 주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